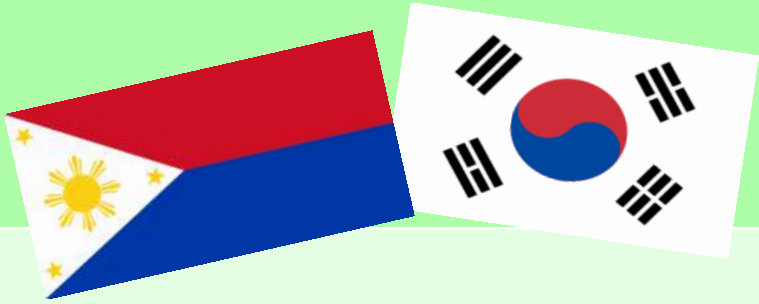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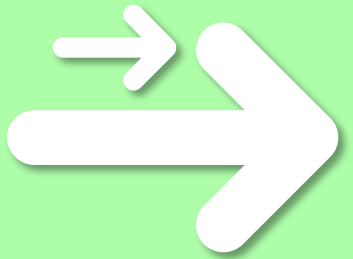


필리핀 락아팀의 최종 보고회

5 더하기 2 는 7

7 더하기 사람을 라온아띠





1. '락아' 가 소개하는 호스트 기관
2. 우리의 활동 내용
3. 우리의 피드백
4. '락아' 의 소감
5. 최종 영상

01

‘락아’가 소개하는 호스트 기관

호스트 기관 소개_필리핀 YMCA 연맹



락아팀이 국제자원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파견된 '필리핀'은
라운아띠를 담당해주시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 중 먼저,
필리핀 YMCA 연맹 가족을 소개를 해보자면요~

우리의 Boss
'Fines'

어머니같은
'Ate Maricel'

Real Boss
'Tatay Ed'

필리핀
YMCA 연맹
사무총장이신
'Kuya Pabs'

우리의
처음과 끝을
함께한
'Kuya Tex'



호스트 기관 소개_Cam. Sur YMCA



다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함께 한 Cam. Sur YMCA 가족들을 소개해보자면요~

제6의
라온아띠 멤버이자
똑순이 코디네이터
'Mika'

"I'm your big brother."
이라고 말씀해주시는
우리의 현지 보호자
'Kuya John'

Cam. Sur YMCA
이사님이신
'Kuya Albert'

옆집 이모같은
'Tita Ems'



편식쟁이
'Casi'

신~신이 난다!!
우리 집 흥쟁이
'Chu Chai'



이렇게 우리 많은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호스트 기관 소개_Cam. Sur YMCA...

우리 Cam. Sur YMCA에는요...

일단, 세상최고귀요미들인 아띠들이 있어요!



다음으로는

1. 2014년에 Cam. Sur YMCA가 Naga City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유스 리더십 캠프가 있습니다.
3. 장학금 제도를 운영을 해서 청소년 친구들의 학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4. 대부분의 회원이 GCF 교회분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 건물에 Office가 위치했습니다.
5. 필리핀 YMCA 이사장님이신 Tatay Ed는 캄수르 Y 출신이라고 합니다!_그래서 그런지 많이 만났어요!☺



02

우리의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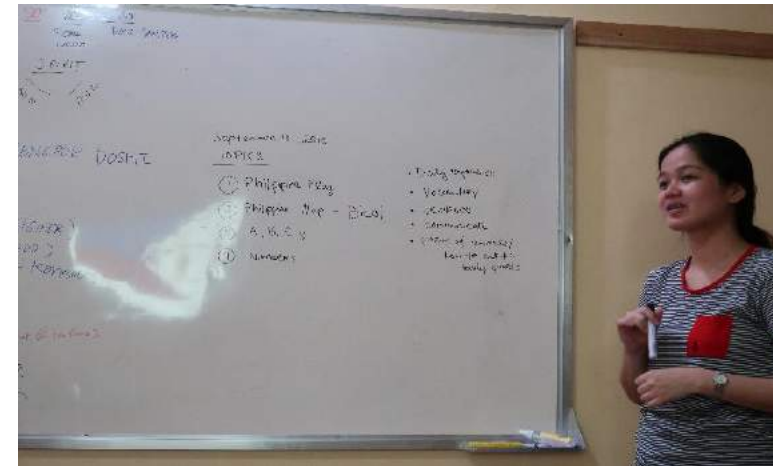
9월, 적응의 시간들~



마닐라에서 OT 듣기



Ano? New CR



미카와 따갈로그어 공부



벌레와의 전쟁



꾸야의 강의

9월, 적응의 시간들~



한국과 다른 초대 문화



어딜 가나 시선 집중



루피와 돌로 방문



활동을 위한 비자 연장



끝없는 계획과 문제 탐색, 결정

Lupi 일정 변경...!!!!

OCTOBER	1	2	3	4	5	6
	LUPI					
7	8	9	10월의 미뤄진 LUPI 홈스테이 일정, WHY? 10→ 우리의 호스트 기관인 캄수르 Y의 제안. “루피 사람들과 관계를 더 잘 맺기 위해 타갈로그어 공부를 좀 더 하면 어떨까?”			
14	15	16	17	18	19	20
			LUPI			



다양한 방식으로 타갈로그어 공부



피딩프로그램 봉사자로 참여



커피테이블 일일 알바 체험

본격 루피 생활 시작하기

▶ 9월은 루피와 나가를 왔다 갔다 하며 문제를 인식했고, 10월은 홈스테이를 하며 데이케어 센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활동했다.



Bono &
Mika



Sue &
Pepper

Main Road

BARANGAY
HALL

Day
Care
Center

JunJun

Jimmy



9월,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들

#1 쓰레기 문제



#2 부엌 문제



우리의 활동지! 데이케어센터.

#3 교육환경 문제



#4 교육의 질 문제



#5 음식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자!

▶ 우리는 육하원칙에 따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1 쓰레기 문제



<1>

쓰레기가 데이케어 센터 곳곳에 쌓여 방치되어 있다.



<2>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없어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 쓰레기를 태우는 문제)



하나씩 살펴보자!

#2 부엌 문제 Kitchen



<1> 비가 오면 부엌이 무릎의 반 정도 높이까지 잠긴다.

<2> 부엌의 기둥이 낮고, 지붕이 녹슬어서 부상의 위험이 크다.

<3> 화덕과 요리하는 책상이 오래되고 낡아서 부서질 위험이 있고 비위생적이다.



<4> 부엌에서 요리 할 때 지붕이 낮고 굴뚝이 없어서 연기가 아이들의 교실로 유입된다.

<5> 급수 시간이 정해져 있어, 물을 미리 받아 놓아 비눗물을 제대로 행구지 못한다.

하나씩 살펴보자!

#3 교육환경 문제



교실에 조명이 없다.

아이들이 읽을 책이 부족하다.



책상 교체가 필요하다.

문고리 파손, 조명이 없다.



칠판 교체가 필요하다.

건물 내 외관의 보수필요.

하나씩 살펴보자!

#4 교육의 질 문제



- 아이들의 인원수에 비해 교사의 수가 부족하다.
- 수업교재가 많이 낡았다.

#5 음식 문제



- 한 아이당 15페소의 예산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공급하기에 부족하다.

문제 탐색 그 이후, 함께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1 부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 부엌 짓기! 10월과 11월,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한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공사 합의 과정



자재 구매



정부의 도움 받기



공사 직전 계획 변경



주방 철거



임시 화덕 공사



인력부족으로 난항



공사 시작 ~

문제 탐색 그 이후, 함께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새로 지어진 부엌 안에서.
이제는 허리 안 굽혀도 돼요~.

부엌 문제가 이렇게 일사천리로 간단하였을까요?
지금부터 부엌 공사의 A to Z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역을 완공하기까지...

※ 부역 공사의 진실과 그 과정...



부역 첫 방문



바랑가이 측이 만든 설계도



바랑가이와 우리의 의견 수렴



공사 일정 합의



자재 가격 점검



부역 도구 자재 가격 체크

부역을 완공하기까지...



갑작스러운 산페르난도 시장 등장!



설계도와 자재, 전문인력 대변경



부역 철거 및 임시화덕 공사



갑작스러운 꾸야 레이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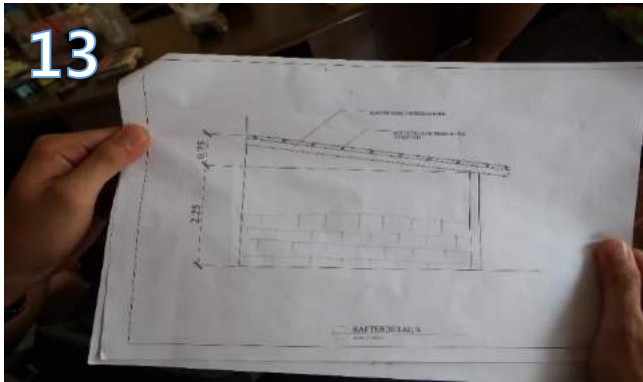


지붕모양 변경 제안 받음



/ 모양으로 최종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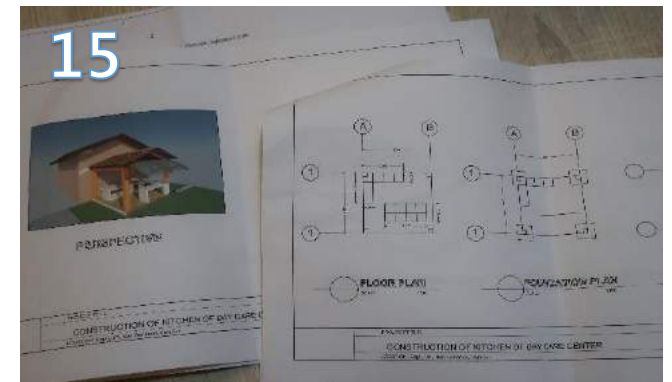
부엌을 완공하기까지...



지붕모양!! ▶ / VS ㄱ



설계도 미확정으로 최소수량의 자재 구매



결국 ㄱ 지붕의 승리!



비자 연장, 예산 대변수 발생



뭐라도 해보자! 한국연락도...



가불 확정 후 공사 시작



시청의 도움 & 꾸야 Carloy

부엌을 완공하기까지...

20



오래 되고 낡았던 부엌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허물었어요~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고



물리고



발라 나가요

부엌을 완공하기까지...



꾸야 알렉스 → 간지 꾸야
기존 감독관이시던 꾸야 알렉스의 가족이 편찮으셔서 공사 도중에 잠시 떠나셨다.



배수로 작업
우기 때마다 침수되던
부엌과 주변 길에 배수로 건설 & 시멘트 포장



데이케어센터 파티 중, 피딩 프로그램이 4월에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가스 설치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눔



19년 4월에 캄수르 Y와 데이케어센터가 소통하여 가스를 설치하기로 결정.
가스 스토브는 미리 선생님께!



가스탱크와 스토브의
도난 방지를 위한 **철문 설치**



꾸야 Carloy 방문
꾸야가 생각보다 많이 편찮으시다는 것을 알고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방문하였다.

부엌을 완공하기까지...

짜잔~ 그렇게 완성된 우리의 부엌입니다.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나요? 😊.

문제 탐색 그 이후, 함께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2 교육의 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Problem #1 교사의 수가 부족하다.

▶ 초기 : 인근 고등학교 친구들을 모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클럽**을 만들어보자!

하지만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병행에 어려움**을 느껴 보류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냄!**

초기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수업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낸다고 **설부른 판단**을 했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 진행에 있어 **부모님들의 수업 참여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됨.



▶ 아이들과 몸으로 함께 놀기



▶ 한국놀이를 따갈로그어로!



▶ 생태놀이를 활용한 물의 여행



▶ 학습지도를 돕는 부모님들

문제 탐색 그 이후, 함께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2 교육의 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Problem #2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남았다.

▶ 초기 : 빈곤 퇴치 캠페인으로 책을 기부 받는 활동을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 고민함.

하지만 10월 17일에 보여주기 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팀원들의 거부감이 있었음.

이런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미카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고, 여러 책을 기부 받음.

하지만 대부분의 책 내용은 수업에는 사용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여전히 교육 자재는 부족했음.

그래서 추후에 지역 프로젝트로 “락아네 사진관” 을 진행하면서 모은 기부금으로 교육자재를 추가적으로 구매



문제 탐색 그 이후, 함께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3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Problem #1 - 전구, 문고리, 건물 안과 밖의 페인트, 칠판 등 다양한 물건들의 교체가 필요하다.

▶ 초기 : 센터의 선생님들(맘조, 조나비)과 함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 이야기를 진행함.

하지만 부엌 공사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주고만 오는 식의 방법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됨.

전구나, 보드마카 등의 물품 교체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계속 고민했음.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선생님들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또한 책상, 전구, 문고리, 칠판 등은 적절한 것을 찾기 어려웠으며 비싼 가격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음.

결국 우리는 선생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페인트 칠**을 하게 되었음. (루피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문제 탐색 그 이후, 함께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4 음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Problem #1 -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예산이 적어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부실하다.

▶ 초기 : 단기적으로 우리가 음식(간식)을 제공하고 돈을 기부 하는 방식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음.

하지만 야채나 고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보고 음식문제에 대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었음.

부엌이나 교육환경을 개선하면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며 다른 교육 환경 보수에 집중함.

-> 결과적으로 부엌 환경을 개선하여, 더 좋은 위생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됨.

초기에 계획했던 일자리 연결, 가드닝, 동물농장 만들기 등의 프로젝트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진행하지 못했음.



문제 탐색 그 이후, 함께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5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Problem #1 - 쓰레기가 데이케어 센터 곳곳에 쌓여 방치되어 있다.

✓ 지역 아이들과 함께 데이케어 센터 뒤쪽의 쓰레기 청소를 진행함.

-> 이 과정에서 센터의 부모님들과 적절히 소통하지 못했고 데이케어 센터 앞쪽 'Jail' 부분의 청소를 진행하지 못함.

✓ 센터의 아이들이나 어머니들에게 쓰레기 교육의 필요성을 느낌.

-> 아이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활용한 쓰레기 교육 고민. But, 교육의 일회성에 대한 고민, 지역프로젝트 일정과 겹침.

-> 데이케어센터 크리스마스 파티 때 환경 관련 영화 관람 시도. But, 예상과 달랐던 파티의 분위기 & 사전 소통, 준비 부족.



문제 탐색 그 이후, 함께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5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Problem #2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부족하여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 이 문제를 고민하며, 우리는 쓰레기 문제가 데이케어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루피 전체의 쓰레기 처리로 고민의 범위가 확장됨.

✓ 루피의 캡틴과 지속적인 소통(루피에서의 쓰레기 처리 작업 등)을 함.

-> 이후 각 존별로 쓰레기 통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나 사후 관리 미흡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

✓ 쓰레기에 대한 루피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궁금하다!

-> 쓰레기를 주제로 서베이를 진행하고 수치를 정리해서 팀원들과 의견을 공유함.

✓ 중간격려 피드백 :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것과 지역 청년들과의 협업이 부족하다.

-> 데이케어센터 페인트칠을 하며 지역 YOUTH 들과 친목을 쌓으려 했지만, 많은 YOUTH 들이 모이지 않아 잘 되지 않았음.

-> 서베이 데이터는 지역 YOUTH 이자 루피 학생들과 함께 쓰레기활동을 하는 선생님인 YMCA 멤버 ALENA 에게 전달했음.



< From Sep ~ >



우리의 데이케어 센터는

함께했던 사람들 덕분에



점점 루피가 되어갔다.



우리는 데이케어 센터가 아닌 **루피** 전체를 보기 시작했다.



루피 프로젝트. '락(樂) 아' 네 사진관 / 우리가 지역프로젝트로 '사진관'을 선택한 이유!?



가족중심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인데,

“집에 가족사진이 없구나...”

락아네 사진관으로 우리가 가족사진을 선물 하자!



가족



친구



동료

루피 홈스테이를 하며,
가족과의 추억 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만큼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그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루피 프로젝트. '락(樂) 아' 네 사진관 / 사전준비



< 1 > 일정 조율 및 자재 가격 파악



< 2 > 포스터 제작 및 홍보



< 3 > 자재 구매



< 4 > 스튜디오, 판넬 및 공간 꾸미기



루피 프로젝트. '락(樂) 아' 네 사진관 / 프로젝트 시작 '가족&친구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ONE
TWO
THREE



찰칵!
스마일~

ITO ITO
(여기여기)



우리가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행복한 찰나의 순간과 가족, 친구와의 온기를 담고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수많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스튜디오에 퍼지는 웃음 소리와 사진 속 미소를 보며 이 프로젝트를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피 프로젝트. '락(樂) 아' 네 사진관 / 프로젝트 이후 '사진 분류! 포장! 배달!'



락아네 사진관 사진 분류! 포장!



락아네 사진 배달~

5개월, 우리 활동의 마무리... / 1, 2월 락아의 스케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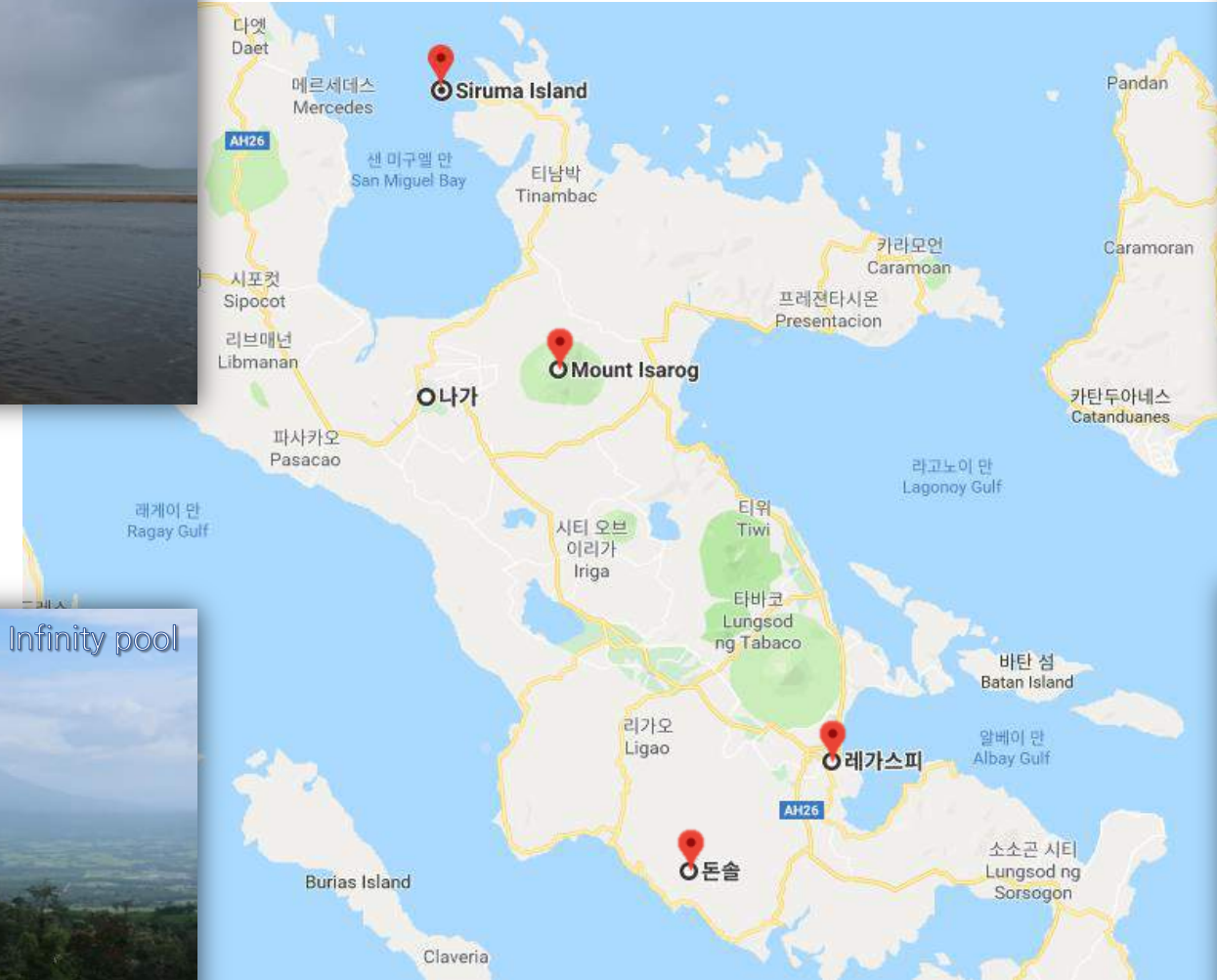
1月 & 2月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6	7	8	9	10	11	12
				Good bye to JunJun		
13	14	15	16	17	18	19
		루피 방문				Good bye to Lupi
20	21	22	23	24	25	26
		← Travel 1. Siruma →		Travel 2. Mt. Isarog		
27	28	29	30	31	2/1	2
Good bye to Y Family	Good bye to Korean house	← Travel 3. Albay & Sorsogon →			Good bye to Chu & Casi	Good bye to Kuya's Family
3	4	5	6	7		
	Good bye to Our Neighbors					

5개월, 우리 활동의 마무리... / Let's Travel!

Siruma Island



Mayon Volcano



Infinity pool



Butanding(고래상어)



5개월, 우리 활동의 마무리... / 한편, 이 시각은 준준은...?



준준
2019년 01월 10일,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우연히 친구를 만나,
이야기도 하고~



설날 음식인
'동태전'을 만들고,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고~

그랬답니다!☺



5개월, 우리 활동의 마무리... / 한편, 이 시각은 준준은...?



귀국 후에도,
팀원들과 연락을
거의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의
최종 보고회에서는 영상으로
개인 Reflection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분신인 너구리 인형이
감사패도 받았답니다!

이렇게 준준은 한국에 무사히 귀국을 해서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5개월, 우리 활동의 마무리... / 안녕 필리핀...



감사합니다..
Bye bye...



5개월, 우리 활동의 마무리... / 안녕 필리핀...



준준



Y 식구들



다양당 Korean House 사장님



추 & 카시



꾸야 존 가족



The Coffee Table 친구들



K-Mart 사장님



LCC store 친구들

03

우리의 피드백

BONO

데이케어센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이 루피에 적응 할 수 있었던 디딤돌이었던 것 같다. 명확하게 주어진 역할이 없었지만 우리 팀 내에서 아이들과 뛰어 놀고, 학습내용을 도와주고, 밥 먹는 것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던 것 같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활동들(ex. 부엌 공사, 락아네 사진관)을 병행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갔던 것이 꾸준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개인적으로 데이케어센터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시간들을 제외하고 그 외의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 데이케어 센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페인트칠이나 부엌 공사 등은 단순히 데이케어센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 루피 전체 바랑가이 오피셜님들과 주민인 선생님들, 부모님들과 함께 했던 일들이기에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특히 부엌 공사를 하며 여러 주체와 함께 하나의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며 생각보다 대화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함께 일을 해나가며 맞이했던 어려움들은 생각해보면 대화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전체 과정을 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대화를 잘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보다는 다들 처음 하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씩 배워가는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함께 하는 주체들을 고려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의미 있었던 것 같다.

데이케어센터에서의 우리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피드백하고자 한다.

제일 먼저, 쓰레기 프로젝트는 우리가 루피에서 살면서 제일 크게 느낀 문제 중 하나였고, 이 출발점을 우리의 주 활동지인 데이케어센터에서 시작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어린이, 청소년들이 함께 해주었고, 이를 본 마을의 어른들도 함께 참여를 해주셨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을의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땅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청소로 인해서 마을 곳곳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었다는데 정말 감사했다. 다만, 우리도 데이케어센터 안의 쓰레기 문제를 끝까지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과 마을 자체적으로 쓰레기통이 주기적으로 교체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다음으로,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 변화 부분이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다. 주변인이 되는 것과 지속가능성을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말이다. 솔직히 말해서 예산 내에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많았지만,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도 지속해서 제대로 된 사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모든 부분이 좋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꼽자면, 상황에 따라 우리의 의견이 계속 변경이 되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이지 않았던 점이다.

그리고 교육을 직접 해보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과감하게 진행을 해볼 수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 하루를 날 잡아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면 더 알찬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 이 과정에서도 생태놀이교육을 바탕으로 우리가 배웠던 걸 변형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빈곤퇴치캠페인과 연계하여 책 기부 프로젝트를 시행했었던 것은 잘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활동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는 부엌 개선 프로젝트이다.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것 같다. 그리고 공사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았지만, 모두가 만족하면서 진행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프로젝트였다.

PEPPER

아이들이라는 존재는 어마 무시한 마력을 지니고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눈 앞에 서면 싹 잊게 해준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해질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항상 반가워 해주고 손을 이끌어주는 아이들이 고맙다. 밥 먹으라고 챙겨주시고, 부엌 공사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와주시던 부모님들께도 감사 드린다.

부엌, 쓰레기, 교육 환경, 교육 보조, 음식. 이 다섯 개의 파트에서 회의와 고민을 거듭하면서 신경 쓸 단어와 사람도 참 많았다. 잘잘못을 떠나 모두가 진심으로 임했기에 고생했다고 어깨를 토닥여 주고 싶다. 부엌이 완공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라온아띠 하다 보면 별 일이 다 있다는 걸 듣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작다고 느껴지는 일 하나도 관련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을 포함시키려 했다. 이야기가 담긴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듯, 이야기가 담긴 부엌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함께 부엌 공사를 진행해주시던 한 꾸야께서 고혈압으로 인해 공사 도중 병원에 가신 적이 있다. 바로 어제까지 우리에게 웃어주셨는데 하룻밤 사이에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차에 올라타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후회가 밀려왔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고,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든 강렬한 햇빛 바로 아래에서 공사해주는 분들을 위해 천막이라도 설치했더라면. 천막이 아니더라도 무서운 하늘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우실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꾸야가 아프신 것에 여전히 책임감을 느낀다. 너무 죄송하다.

〈부엌〉

SUE - 데이케어센터를 방문하기 전, 꾸아에게 부엌의 심각성에 대해 듣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정말 부엌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했다. 하지만 꾸아의 말과 별개로 우리는 수차례의 팀 회의를 거쳐 부엌을 개선해 나가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합의해 나갔고, 우리의 5개월 중 꽤 긴 시간을 부엌을 바꾸어 나가는데 할애했다. 부엌의 설계를 그리고 자재를 사고 건축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쉬운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예측과 맞아 떨어지는 일정, 계획보다 그렇지 않은 순간이 더 많았다. 이런 일들로 데이케어센터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큰 집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 가끔은 부엌이 많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우리로 인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에 우리가 주변인이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했지만 부엌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 주체가 루피의 사람들이었고 또 많은 부분을 함께해 나가며 우리는 주변인이 되는 과정을 배웠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또 이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신경 써야 했는데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서 잘 해낸 것 같아 대견한 마음이 든다.

아직 부엌 프로젝트는 끝이 아니다. 4월 캄수르 Y가 선생님들에게 가스를 전달하는 과정이 남아있고 부모님들이 부엌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쓰시는지, 규칙이 있는지도 차후에 확인을 해야 한다. 락아팀..... 화이팅!!

JIMMY - 루피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프로젝트. 지금이야 예쁘게 지어졌지만, 그 전까지의 과정들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 속에서 많은 고민들과 배움이 있었다. 집중했던 프로젝트였던 만큼 함께 잘 헤쳐나간 것 같아서 기쁘다.

〈교육의 질〉

SUE - 아이들 수업에 몇 번 참여해보고, 교구를 사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던 ‘교육의 질’문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교육의 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었다. 데이케어센터는 교육의 장소이기 보다 밥을 먹으러 오는 느낌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나이이지만 나가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영어를 사용하는데 루피의 친구들은 그렇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교육의 차이가 이런 현상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캄수르 Y에서 아쉬웠던 점이 Y의 청년들 기반이 약하고 진행되고 있던 프로그램이 없어 우리 또래의 청년들과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질 문제를 루피의 학생들, 청년들과 해결해 나가보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냈고 회의를 통해 종종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쉽게 실행되지 못하였다. (정말 부엌 문제에 파묻혀 있었다는 말이 나에게는 맞다.)

나의 라온아띠 지원 이유 중 하나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것이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 방법을 내가 교육으로 인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캄팀의 월별보고서를 읽으며 수업을 맡아 진행하는 것이 대단해 보였고 우리도 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다른 언어로 준비하고, 일정을 잡고 조율하는 그 과정이 두려워 눈을 감아버렸다.

〈쓰레기〉

SUE - 쓰레기를 같이 줍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꾸야 팝스의 말이 떠오른다. 하지만 함께 쓰레기를 줬던 아이들은 얼마가지 않아 다시 길거리에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버렸다. 꾸야팝스의 말과 아이들의 행동이 오버랩 되어 머릿속을 스쳐 간다. 임팩트 있었던 활동이 맞을까?

<교육환경>

JIMMY - 우리가 얼마나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다. 함께 생각했던 것들을 고려하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찾아가다가 페인트칠을 했다. 벽에 핀 곰팡이들이 없어지고 조금 더 화사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

SUE - 루피에 있는 내내 교육의 환경 문제로 끊임없이 회의를 했다. 모든 걸 다 해주고 가는 사람들로 남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이왕 프로젝트 비를 이곳에서 쓸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두 마음 사이에서 다들 어렵게 우선순위를 만들어 나갔다. 전구를 설치해주고 싶었으나 전구가 터무니없이 비싸 유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칠판을 화이트보드로 바꾸려니 분필보다 비싼 마카를 선생님들이 조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책상을 바꾸고자 여러 곳들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우리가 찾는 책상은 없었다. 만들어 보려고 하면 부엌 프로젝트의 과정이 떠올라 접어두었다. 그러다 선생님들과 의논을 통해 페인트칠을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서는 가장 낮았던 페인트칠이 선생님들에게는 1순위였다. 결국 선생님의 말을 따라 페인트칠을하기로 결정했다. 음.. 뭔가 허무했다.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회의했는데 시간에 쫓겨 내린 결론이 선생님들의 말을 따르는 것인가.. 하는 그런 느낌? 페인트칠을 한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일정에 쫓겼던 것, 부엌에 과정을 다시 겪을까봐 두려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지 못한 채 결론에 도달한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겨진 것 같다.

<음식>

JIMMY - 처음에 15페소(약 300원)로 어떻게 한 끼를 해결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내가 가장 맛있게, 배불리 먹게 되었다.

락아네 사진관

PEPPER 사진관하길 참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 루피 집 TV 앞에 놓여진 액자들이 화면을 가릴 때

SUE

빈곤퇴치 캠페인, 350PPM, 지역프로젝트 등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들 속에서 우리의 목표는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것을 하지 않는 것, 또 프로젝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있어 일상생활에서 느낀 아쉬움을 지역 프로젝트화 했던 락아네 사진관은 내게 또 우리 팀에 큰 의미가 있다. 사람들의 웃음과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주려고 했지만 도리어 내가 받은 그런 시간이었다.

BONO

락아네 사진관은 12월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한 프로젝트였다. 12월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이 프로젝트에 쓰였다. 중간 평가 이후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개인적으로 12월에는 우리 팀 내에서 루피 활동이 끝날 것이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기에 남겨진 활동 역시 함께 진행했다. 여러 활동들을 병행함에 있어서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했고, 홈스테이로 따로 살게 되는 시간이 계속되고, 나눔은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팀원 내부적으로 서로의 삶을 잘 공유되지 못한 점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 시작은 좋은 마음이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 그 마음보다는 체력적인 힘듦이 커졌던 것 같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루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곳 저곳을 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의 행복한 순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다.

락아네 사진관

JIMMY

부엌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기획해서 실행해봤던 프로젝트. 전문 사진사가 아니라서 조금 긴장됐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방문해서 즐겁게 사진을 찍고 함께 고르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다. 크리스마스 직전에 사진들을 배달하며, 사진을 받고 기뻐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다.

JUNJUN

락아네 사진관은 다른 프로젝트와는 달리 우리가 기획하고 진행을 하는 독자적인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바랑가이 루피 사람들이 되는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면에서 다른 프로젝트와는 결이 다른 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준비 과정에서 더욱 긴장되는 면이 있었다. 사람들이 안 와주면 어떡하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기부금이 안 모이면 어떻게 하지 등과 같은 걱정으로 인해서 말이다.

하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대성공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 결과 우리가 예상했던 기부금에 걸맞은 수준의 기부금이 모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루피 마을 분들, 홈스테이 가족들과 더 깊은 정서적인 교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서로서로를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사진'이라는 선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우리의 인연을 소중히 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또한, 직접 사진 배달을 함으로써 우리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사는 곳을 방문해볼 수 있어서 더 좋았다.

다만, 락아네 사진관 프로젝트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마감하는 시간마다 피드백이 오가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고 생각이 든다. 또한, 우리가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돈을 걸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들기도 한다. '돈'이라는 시장 요소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문턱을 형성한 것은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정말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이다.

바수라 프로젝트

JUNJUN

일명 ‘쓰레기 프로젝트’인 ‘Basura 프로젝트’는 참으로도 건들기가 어려웠던 프로젝트였다. 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성도 달랐었고, 어떻게 시작을 하든 끝맺음을 맺기가 어려워 보였고, 점점 미루어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다. 그래도 우린 계속된 토론과 토의 과정을 거쳐서 방향성을 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첫 시작으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설문 조사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공유를 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이후 중간 격려로 인해서 잠깐 심의 기간을 두고, 우리는 중간 격려에서 나왔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YMCA 청년들은 아니더라도 지역 청년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이 안에서도 ‘청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달랐던 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서로가 이를 제대로 공유를 못 했던 점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우린 우리가 가고 나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을 청년들이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주고 가고자 했지만, 내가 아프면서 활동이 중단되면서 그러지 못하게 되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을 해보고자 청년들과 친해지고자 노력을 간간히 했고, 함께 데이케어센터 교육 환경 변화를 위한 페인트칠도 진행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들 모두 최고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에 다음에 방문하게 되면,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주었다는 생각이 든다.

JIMMY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느껴서 뭔가를 해보려 했다. 그 시작으로 우리만 이것을 문제라 생각하는 건지, 더 좋은 생각들이 있는지, 루피 주민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Y 청년이자 루피 주민의 선생님인 알레나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의 활동을 넘겼다.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루피 주민들의 생각을 한데 모아서 이후에 활동을 해볼 수 있는 알레나에게 전달했다는 것에 나름의 만족을 한다.

바수라 프로젝트

BONO

바수라 프로젝트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활동이다. 루피가 단순 활동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장소이기에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은 생활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초반에는 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어디 까지 정할 것인가에 대해 팀 내에서 많은 대화를 하였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국가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졌던 것 같다. 그래서 초반에 마을 사람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던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중간평가 이후에 갈피를 잡아 루피 사람들과 이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진행해보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 락 아네 사진관 프로젝트 준비를 병행하며 체력적인 어려움 때문에 루피 유스들과 일정을 잡는 것이 계속 미뤄지기도 했다.

그래도 우리가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역 주민이자 ymca 멤버인 알레나에게 전달해서 이 데이터가 추후에 루피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씨앗?! 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SUE

데이커에선터 문제에서 루피 전체로 커져갔던 쓰레기 문제를 팀끼리 의논할 때 마다 개인의 시민 의식에서 정부 '시스템' 이야기 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쓰레기통에 농구골대를 설치해보자, 아이들에게 쓰레기를 잘 버리면 칭찬해요 스티커를 주자, 환경 영화를 보자 등 참 많은 의견들과 아이디어들을 공유했다. 하지만 서베이를 시작과 끝으로 바수라 프로젝트는 끝이 났다. 역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청년들을 주체로 무언가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의논과 토론보다 그냥 걱정 없이 아무거나 한번 해보면 어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활동의 장기적인 영향과 결론을 고민하느라 '재미'와 '무모함'이 주는 알 수 없는 영향을 잊었던 것 같다.

PEPPER

루피 생활 내내 머릿속 한 구석에서 굳건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바수라 프로젝트.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고자 많은 것들을 계획했었다. 여러 이유들로 프로젝트는 설문조사 결과를 지역 유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한 나라의 사회 문제를 근 3달 동안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육의 일회성으로 아이들의 행동이 변화할까 우려 돼 시도하지 않았던 데이케어센터의 쓰레기 교육이다. 단 한 번 스치는 기억이 될 지라도, 그 작은 기억이 누군가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야 생각해본다. 아이들, 부모님들, 부모님 대신 동생을 데리러 온 청소년들 등등.

어느 날 루피에서,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자고 제안만 하지 말고 내가 한 번 실행해보자 결심했다. 되게 사소하고 쉬운 활동이라 여겼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무게감이 있었다. 몸을 굽혀 쓰레기를 줍고 그것을 쓰레기 통에 넣는 신체적인 에너지 소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무게감이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먼저 나서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JUNJUN

홈스테이를 통해서 또 하나의 가족을 얻게 되어서 감사하다. 나를 가족처럼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루피 활동 중에 힘들 때, 쉬고 싶을 때,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했다. 또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TV를 보고, 한국어/타갈로그어 공부를 하고, 보드게임을 하는 등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다. 홈스테이 자체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냥 다 감사하다.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말마다 센터로 돌아갔던 점은 아쉽다. 처음부터 그곳에서 지냈으면 어떠했겠느냐는 생각이 종종 든다. 그래도 이에 대해서 루피에 사는 기간을 변경을 해보는 등 서로의 피드백에 대해서 개선해나가고자 노력을 했었다.

BONO

홈스테이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활동이자 그냥 삶이기도 했다. 호스트 기관인 캄수르 Y가 처음으로 활동을 진행하다보니 그 미숙함으로 홈스테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력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꾸야 존과 지속적인 소통이 되지 못한 부분 역시 아쉬웠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우리 팀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나뉘게 되면서 함께 공유할 수 없는 한계가 생겨서 아쉽기도 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눔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프로젝트와 피로 등으로 이어나가지 못했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홈스테이를 통해 나는 루피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루피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관계들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삶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약 2달 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살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나는 예상보다 길어진 홈스테이 시간이 정말 감사했다. 성향상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충분한 시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SUE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고 3달간 루피에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홈스테이에서 계란사건, 겔블링 사건, 연장중단 사건 등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 일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지 Y와 홈스테이 가족들의 소통에 부재였다. 홈스테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현지 Y의 부족했던 점들이 많이 떠오른다. 첫 번째, 홈스테이를 시작하기 전 가족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홈스테이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즉 OT가 부족했다. 두 번째, 가족들에게 신경을 쓰는 노력이 부족했다. 음식은 괜찮은지 한국인들은 문제없는지 먼저 찾아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관계를 맺어야 했다. 세 번째, 홈스테이 기간이 연장이 될 때 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왜 연장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야 했고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가족들 특히 우리 홈스테이 엄마가 겪은 몇 가지 상처들은 내가 Y에 진작 알리고 서둘러 소통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아직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신경 써야 하는 사람과 일들이 너~무 많았다.

JIMMY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동남아의 어떤 나라, 관광지 등의 수식어가 아니라 소중한 인연들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었다.

PEPPER

사랑 많고 사람 많아 풍요로웠지만 그만큼 빈곤했던 시간들이었다. 모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해하기 힘들었다. 신뢰가 쌓여가는 중 발생한 일들이 내 머릿속을 헤집어놓았다. 내가 느끼길 원하는 감정과 느껴지는 감정들이 자꾸 충돌했고 루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근데 또 막상 가면, 그 안에서 난 행복 뽀뽀 웃음을 짓고 있다. 누군가의 삶에 들어간다는 건 서로 많은 준비가 필요했던 것 같다.

PEPPER

필리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려 계속 애써주신 꾸야 존과 미카 정말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 함께 즐겁게 여행한 우리 팀원들에게도 너무 감사! 시루마섬 여행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주민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산<마욤마욤MAYON VOLCANO마욤 마욤!!!!!!!!!!!!!!>을 만난 감사한 활동이었다. 회정이의 자리를 준준이(인형)로 채워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내가 여행이라는 활동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들을 얻은 것 같지는 않다는 아쉬움이 든다.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던 사람과 그냥 이 거리를 유지해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사실 노력도 하지 않은 내 모습이 떠올라 스스로가 왕 별로다.. 미안한 마음도 크다. 참 애뜻한 시간들이었다.

BONO

나는 여행을 앞두고 무거운 마음을 가졌던 것 같다. 상황상 준준이도 함께 하지 못하는데 이런 여행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마음이었는데 규홍 간사님의 과제 덕분에 내 마음을 다시 돌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여행 스타일도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름을 조율 하기 보다는 그것을 확인하고 끝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필리핀의 이곳 저곳을 만나며 좋은 시간들을 보낸 것 같다.

JIMMY

뭔가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여행을 기대했지만 사실 그러지는 못했다.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여행 계획을 짜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눴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뜬금없지만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SUE

예산과 일정이 유동성 없이 정해져 있었던 만큼 돌이켜 보니 나에게 여행은 여행이라기보다 하나의 일정에 불과했던 것 같다. 정해진 일정과 계획 속에서 '우연'이 주는 행복이 낄 틈이 없었다.

JUNJUN

여행을 병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했기에 매우 아쉽다.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던 곳에 한정되어서 필리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을 가봄으로써 그리고 문화 체험을 해봄으로써 더 넓은 시각으로 필리핀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그래도 종종 누나들과 형과 연락을 하면서 여행하는 곳의 경치를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04

‘락아’의 소감

05

최종 영상

Oh, 나의 필리핀! Oh인의 Oh개월

